

전통 뉴스 매체와 뉴스 웹 이용이 이민자들의 주류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매개적 역할*

정치지식, 정치관심, 정치활동 참여 변인 예측*

이효성**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강사)

본 연구는 재미 한인 이민자들의 교육수준, 체류기간, 영어실력 변인들이 전통 뉴스매체(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시사잡지)와 뉴스 웹 이용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전통뉴스매체와 웹 이용은 그들의 정치지식, 정치관심, 정치활동 참여 증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고찰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체류기간, 영어실력 변인들은 주류사회의 전통 뉴스매체의 매개적 역할을 거쳐 한인 이민자들의 정치지식, 정치관심, 정치활동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인 이민자들에 의한 미국 뉴스 웹 이용은 주류정치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어 전통 뉴스매체 이용 역시 주류정치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어 뉴스 웹사이트 이용은 정치사회화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민자들의 주류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인터넷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뉴스보다는 전통매체 특히, 주류사회의 전통뉴스매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키워드: 전통뉴스매체, 뉴스웹, 정치사회화, 이민자

*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이며 한국언론정보학회의 2003년 봄철 정치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학술대회의 여러분과 익명의 심사위원님들의 고견에 깊이 감사드린다.

** hyosonglee1@hanmail.net

1. 도입과 연구목적

이민자들과 같은 소수민족 구성원들은 그들이 속한 주류사회에 대해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으며, 그럴 경우 그들은 주류사회의 가치관을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도 있다(Prosser, 1978). 이 같은 맥락에서 이민자들의 정치사회화는 이민자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주류사회 정치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미주 한인 이민자들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예로, Chaffee, Nass, & Yang, 1990; Chaffee & Yang, 1990; Cho, 1999; Junn, 1999; Lee, 1984). 하지만 미디어 이용이 한인 이민자들의 정치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함은 물론 주류사회의 일부 매체(텔레비전과 신문)만을 독립변인으로 채택하거나(참고, Chaffee, Nass, & Yang, 1990), 대중매체와 정치 지식과의 유의미한 관계 규명에만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참고, Lee, 1984). 한편 정치참여 연구에 있어서 인터넷의 중요성은 이미 무시할 수 없게 됐다(Bimber, 1998)는 관점에서, 이민자들의 정치사회화 연구에서 인터넷 매체의 역할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이민자들의 특수한 사회적·정치적 환경을 감안해, 본 연구는 재미 한인 이민자들의 전통 뉴스매체와 뉴스 웹 이용이 그들의 정치사회화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고찰했다. 주요 독립변인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교육수준, 체류기간, 영어실력), 미국의 전통 뉴스 매체(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시사잡지)와 웹 사이트, 한국어 전통 뉴스 매체(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시사잡지)와 한국어 웹 사이트 이용 등 이다. 주요 종속변인은 한인 이민자들이 주류사회의 정치환경에 대해 갖고 있는 정치지식, 정치관심, 정치활동참여 등 이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한인 이민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전통뉴스매체와 뉴스 웹 이용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이러한 뉴스매체 이용은 그들의 정치지식, 정치관심, 정치적 활동 참여 증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했다.

2. 문헌연구

1) 1970년대 이전의 정치사회화 연구

정치사회화란 다양한 사회화 대행자들(가족, 동료, 학교, 대중매체 등)의 매개 역할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의 발전과정이며, 이 같은 과정 속에서 개인은 자신이 속한 정치적 환경과 관련된 인지, 태도, 행위를 습득해간다(Atkin & Gantz, 1978a; Hess & Torney, 1967; Hyman, 1959; Langton, 1969). 1970년대 이전의 정치사회화 연구에서는 주로 가족, 학교, 동료 등이 가장 중요한 사회화의 대행자들로 간주돼왔다(참고, Dawson & Prewitt, 1969; Easton & Dennis, 1969; Greenstein, 1965; Hess & Torney, 1967; Hyman, 1959).

학자들은 정치 문화는 세대간에 전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이 가장 중요한 정치사회화의 대행자라고 주장했다. 즉, 어린이들은 그 어떤 사회화 대행자보다 부모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에 가장 빈번히 노출돼 있기 때문에(Beck, 1977) 그들의 정치적 성향은 가족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참고, Dawson & Prewitt, 1969; Hyman, 1959; Jennings & Niemi, 1968b).

헤스와 토니(Hess & Torney, 1967)는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학교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지배적인 사회화 대행자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학교에서의 애국심 고취 교육을 통해 국가나 국기에 대한 긍정적 성향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어린이들은 국민적 영웅과 국가에 대해 호의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학교 교과서를 통해서도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Stephens, 1967).

또한, 1970년대 이전의 연구에서는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동료집단에 의한 영향 역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됐다. 기본적인 정치적 성향과 정치 지식이 어느 정도 형성돼가면서 가족의 역할은 줄어들고 대신 동료집단의 영향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Dawson & Prewitt, 1969). 즉, 사회화 과정에서 동료집단에 의한 칭찬이나 부추김은 매우 효율적인 사회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2) 1970년대 이후의 정치사회화 연구와 대중매체

이전의 학자들이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못한 것은 오류였다. 이전 연구자들은 시청자들은 텔레비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실제 현실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특히 1970년대 이후의 충분한 텔레비전 보급률을 감안하면 대중매체의 역할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게 됐다. 어린이들은 학교교육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지만 그 지식의 상당부분은 대중매체가 제공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Chubb & Moe, 1988).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1970년대 이후 학자들은 정치사회화(정치지식습득, 정치적 성향 확립, 정치적 참여 증진) 과정에서 대중매체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참고, Atkin & Gantz, 1978b; Chaffee, Ward, & Tipton, 1970; Conway, Wyckoff, Feldbaum, & Ahern, 1981; Garramone & Atkin, 1986; Jennings & Niemi, 1968b; Sheinkopf, 1973). 이들의 연구는 거브너와 동료들의 문화계발효과 이론과 깊은 관련이 있다. 거브너와 동료들은 대중매체는 수용자들에게 쉽없이 ‘텔레비전 세계’를 제시함으로써 문화계발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Gerbner, Morgan, & Signorielli, 1986). 거브너와 동료들은 텔레비전이 수용자의 정치적 성향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들은 텔레비전을 많이 시청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나 보수가 아닌, 온건한 것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Gerbner, Gross, Morgan, & Signorielli, 1984, 1982).

(1) 대중매체와 인지적 효과

1970년대 들어 많은 학자들은 공공사안에 대한 대중 매체의 보도가 수용자들의 정치적 지식 습득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Atkin & Gantz, 1978a, 1978b; Chaffee, Ward, & Tipton, 1970; Hawkins, Pingree, & Roberts, 1975; Hirsch, 1971; Jackson-Beeck, 1979; Johnson, 1973). 서피와 동료들은 청소년들의 대중매체 이용이 그들의 정치 지식을 증진시킴은 물론, 그들은 대중매체

의 보도내용에 근거해 정치적 견해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Chaffee, Ward, & Tipton, 1970). 호킨스와 동료들은 1973년 워터게이트 추문이 폭로됐을 때 10대 초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뉴스매체를 이용한 응답자들이 워터게이트 추문의 내막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Hawkins, Pingree, & Roberts, 1975). 또한 뉴스 매체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공유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Atkin & Gantz, 1978a).

대중매체는 또한 대통령 선거 캠페인 기간동안 대통령, 부통령, 의원 후보 등을 포함한 정치인들에 대한 주요 정보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Dominick, 1972). 미국의 1976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연구에서 패터슨(Patterson, 1980)은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뉴스매체의 보도와 유권자들에 의한 후보인지도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1996년 대통령선거에 대한 연구에서 존슨과 동료들은 전통 매체 이용과 수용자들의 이슈 인지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Johnson, Braima, & Sothirahah, 1999).

(2) 대중매체와 태도적 효과

학자들은 또한 대중매체이용은 수용자들의 정치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Chaffee, Ward, & Tipton, 1970; Graber, 1984). 특히 많은 학자들은 대중매체 이용과 정치적 관심 증진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Atkin & Greenberg, 1974; Drew & Reeves, 1980a; McLeod, Zhongshi, Daily, Steele, Huang, Horowitz, & Chen, 1996; Norris, 1996; Waluszko, 1995; Weaver, 1996; Weaver & Drew, 1995). 드루와 리브스(Drew & Reeves, 1980a)는 10대 초반 청소년들이 갖는 공공사안과 정치에 대한 관심은 그들의 뉴스 시청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엘킨과 그린버그(Atkin & Greenberg, 1974)는 의회활동에 대한 방송보도를 지속적으로 시청하는 고등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의회활동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대중매체 이용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 증진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과 텔레비전을 정보원으로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Johnson & Kaye, 1998; Miller & Reese, 1982). 또한, 대중매체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Austin & Pinkleton, 1997; Pinkleton & Austin, 1998; Leshner & McKean, 1997; McLeod, Zhongshi, Daily, Steele, Huang, Horowitz, & Chen, 1996; Norris, 1996).

(3) 대중매체와 행위적 효과

대중매체에 의한 공공사안 보도는 수용자들의 정치적 활동 참여와도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Lewellen, 1976). 미국의 타임스 미러 센터(Times Mirror Center, 1990)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뉴스프로그램을 빈번히 이용하는 사람들은 선출직 공직자에게 탄원서를 보내는 등 정치참여 활동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임스 미러 센터의 여론조사는 또 매체 이용은 투표행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다. 즉, 매체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투표 참여율은 뉴스를 다소 이용하는 사람들의 투표율보다도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학자들은 또한 미국의 주요 선거에서 투표율이 현저하게 저조해지고 있는 현상은 신문읽기의 감소에 기인한다고 밝혔다(Shaffer, 1981; Teixeira, 1992). 사이몬(Simon, 1996)은 1992년 미국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캠페인 정보 습득 목적의 신문이용은, 인구통계학적 변인, 정치적 관심, 정당 인지, 대인 대화, 다른 매체 이용 등 다양한 변인들로부터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투표참여 예측의 유의미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은 뉴스 매체 이용은 다른 사람들과의 정치적 대화의 증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Anderson, Dardenne, & Killenberg, 1994; Atkin & Gantz, 1978a; Atkin & Greenberg, 1974; Drew & Reeves, 1980a; Egan, 1978; Lewellen, 1976; McLeod, Bybee, & Durall, 1979; Page, 1996). 맥레오드와 동료들(McLeod, Bybee, & Durall, 1979)은 매체이용은 수용자들의 캠페인

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대인 대화를 자극한다고 밝혔다. 대인간의 대화는 매체가 다양한 관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경우 더욱 활성화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McLeod, Kosicki, & McLeod, 1994).

3) 인터넷과 정치 참여

사람들은 인터넷을 이용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배우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소재를 얻고, 정부 관료나 정치인을 접촉하고, 투표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등 인터넷은 이미 정치참여 측면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Bimber, 1998). 미국의 2000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은 인터넷이 선거의 주요 정보원으로서 자리를 굳힌 계기였다. 1996년 대선 캠페인 기간에 비해 2000년 대선기간 동안 네 배나 많은 미국인들이 인터넷으로부터 선거에 대한 뉴스나 정보를 얻었다(Pew Research, 2001). 대선 캠페인이 한창이던 2000년 11월과 12월 사이에 약 5천만 명의 미국인(인터넷 이용자의 약 48%)이 선거에 대한 뉴스를 웹 사이트로부터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다(Pew Internet & American Life, 2001).

(1) 인터넷과 정치 지식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은 점점 더 월드 와이드 웹이나 전자메일 등 인터넷을 이용해 정치적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전파시키고 있다(Swope, 1997). 인터넷으로 인해 평범한 유권자들도 투표기록, 투표결과, 출구조사, 후보연설, 후보들의 정책적 입장 등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됐다(Kurtz, 1995). 인터넷 이용자들은 비이용자들보다 높은 정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데(Bonchek, 1997), 이는 수용자들이 온라인 매체를 전통 매체 버전보다 더 신뢰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정보원으로서 주의를 기울여 이용하려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Johnson & Kaye, 1998). 또한 앨투스와 투스베리(Althaus & Tewksbury, 2000)는 정치지식은 단순한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 이용시간보다 환경감시 차원의 웹사이트 이용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

을 발견했다. 인터넷 뉴스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를 더 자주 이용한다는 점(Pew Research Center, 1998)을 감안하더라도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기술 이용은 정치지식 습득의 증가와 관련있는 것으로 여겨진다(Davis & Owen, 1998).

(2) 인터넷과 정치적 태도

비교적 많은 학자들이 인터넷 이용자들은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단임을 밝히고 있다(Bonchek, Hurwitz, & Mallery, 1996; Bucy, D'Angelo, & Newhagen, 1997; Johnson & Kaye, 1998). 존슨과 케이(Johnson & Kaye, 1998)는 인터넷 이용자의 약 90%가 정치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약 80%가 1996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아마 인터넷 매체가 정치에 대한 공중의 관심을 다시 활기 띠게 하기 때문인 듯하다(Davis, 1999). 존슨과 케이(Johnson & Kaye, 2000)에 따르면,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정치정보 습득을 위한 웹 사이트 이용과 정치 사이트 이용에 보낸 시간은 유권자들의 정치관심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 정치적 기반이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3당 후보'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선거의 경쟁을 증진시키게 된다. 경쟁적인 후보 명단의 증가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Corrado, 1996).

(3) 인터넷과 정치적 활동 참여

인터넷 이용은 또한 사람들의 정치활동의 참여를 촉진시킨다(Browning, 1996; Rheingold, 1993). 우선 인터넷은 기존의 전통 매체가 해내지 못한 다양한 견해와 정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해준다(Berman & Weitzner, 1997). 온라인 대화 참여, 웹 사이트 개설, 메일링 리스트 구축 등이 수월해져, 개인이나 단체는 이제 이슈가 발생하자마자 새로운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Berman & Weitzner, 1997). 특히, 인터넷의 전자메일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정부나 선출직 공직자들과 직접 의견교환을 가능케 함으로써 정책입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만들었다(Browning, 1996; Corrado, 1996). 토론그룹과 전자게시판 역시 개인들이 정치적 견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Johnson & Kaye, 1998).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들은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 중요한 이슈에 대한 공중의 입장을 조사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전자 타운미팅을 열어 어떤 이슈에 대한 공중의 관심사를 듣거나 유권자들을 교육시킬 수 있게 됐다(Becker, 1993; Corrado, 1996; Pavlik, 1996; Toffler & Toffler, 1995). 궁극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직접 투표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투표행위가 보다 간편해져 투표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Hall, 1997; Snider, 1994).

인터넷 사용자들의 투표율은 비 사용자들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Katz, 1997; GVU, 1997; Pew Research Center, 1996). 인터넷 사용자들의 높은 정치적 관심은 높은 투표율로 이어진다(Johnson & Kaye, 1998). 미국의 인터넷 선거 뉴스 이용자의 약 43%가 인터넷은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들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1996년 대선 때의 31%보다 크게 증가한 비율이다(Pew Research Center, 2001). 특히, 온라인에 의한 선거 뉴스는 젊은 층과 교육 수준이 높은 남성 유권자들의 투표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1996년 대선에서 8백50만 명의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는데 있어 인터넷의 영향을 받았으며, 젊을수록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은 남성일수록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됐다(Winston, 1996). 미국의 2000년 대선에서 30세 이하 유권자들 중, 온라인 선거 뉴스 사용자들의 약 절반 정도가 특정 후보에 찬성 혹은 반대표를 던지는데 있어 온라인정보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Pew Research Center, 2001).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 2001) 조사에 따르면 2000년 대선 캠페인의 막바지 단계인 11월과 12월 동안, 여성 인터넷 이용자 보다는 남성 인터넷 이용자가 더 적극적으로 인터넷으로부터 정치뉴스를 얻었으며 부유층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이용자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치 뉴스를 얻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 이민자들의 정치사회화 연구

1970년대와 1980년대 중반까지의 정치사회화 연구는 주로 어린이들에 집중돼 있었지만 비교적 최근의 연구자들은 성인의 정치사회화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예로, Chaffee, Nass, & Yang, 1990; Lee, 1984; Sigel, 1989; Subervi-Velez, 1984). 사회화란 결코 어린이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인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개인적 혹은 사회적 차원의 변화는 그들에게 새로운 배움을 요구하게 되며, 이는 그들의 재사회화로 이어지게 된다(Graber, 1997). 다시 말해, 한 성인은 일생동안 가족구성의 변화, 교육을 통한 지위 변화, 직장에서의 위치 변화 등을 겪는 과정에서 새로운 행위와 역할을 요구받게 되기 때문에 이에 적응하기 위해 재사회화를 필요로 한다(Brim, 1968; Dion, 1985; Mortimer & Simmons, 1978; Riley, Foner, Hess, & Toby, 1969).

특히, 국제적 이민자들이 고국과 전혀 다른 정치 환경을 가진 새로운 국가에 입국하게 되면 그들은 새로운 정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Lee, 1984). 여러 면에서 새로운 나라에 갓 도착한 이민자는 그 사회에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와 비슷하다(Sigel, 1965). 특히, 개인주의 문화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온 미국인들은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이민자들과 상호교류를 통한 이해증진에 인색하다(Anderson, 1997). 이 같은 상황에서 이민자들이 겪는 재사회화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유용한 사회화 대행자로는 새로운 사회의 도처에 존재하는 각종 대중매체가 적절할 것이다. 호스트 사회의 대중매체는 특히 주류 사회의 원주민들과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는 초창기 이민자들에게 유용한 문화습득원이 된다(Kim, 1995). 미국 대중매체의 이용은 미국내 이민자들의 문화동화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DeFleur & Cho, 1957; Graves, 1967; Jaw, 1991; Richmond, 1967).

학자들은 이민자들의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대중매체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참고, Buehler, 1976; Chaffee, Nass, & Yang, 1990; Lee,

1984; Suvervi-Velez, 1984). 부엘러(Buehler, 1976)는 미국 디트로이트에 거주하는 멕시코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멕시코계의 선거 투표율은 나이, 사회경제적 지위, 체류기간등과 함께 대중매체 노출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부엘러(Buehler, 1976)는 또 교육수준이 높은 멕시코계 유권자들 중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투표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또한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도 잡지와 신문을 이용하는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수버비-벨레즈(Subervi-Velez, 1984)는 히스패닉(스페인어)과 앵글로(영어)계 신문과 잡지는 푸에르토리코계 소수 민족들의 정치지식 증진과 유의미한 긍정적 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히스패닉 인쇄매체는 라틴계(멕시코, 푸에르토리칸, 쿠바계) 소수민족들의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버비-벨레즈는 앵글로 인쇄매체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멕시코계와 쿠바계 미국인들의 정치 지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주 한인 이민자들에 대한 정치사회화 연구는 비록 적지만 호스트 사회의 대중매체는 한인 이민자들의 정치사회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피와 동료들은 주류사회의 텔레비전 뉴스와 신문은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의 정치환경에 사회화돼 가는 데 있어 유의미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Chaffee, Nass, & Yang, 1990). 서피와 동료들은 한인 이민자들에 의한 호스트 텔레비전과 신문 이용은 미국 주류 정치인과 정치 이슈 학습의 긍정적인 예측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리(Lee, 1984) 역시 미국내 한인들에 의한 주류 대중매체 이용은 그들의 정치지식 습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편, 선행 연구자들은 이민자들의 호스트사회 체류기간과 교육수준 등은 그들의 주류 정치사회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리(Lee, 1984)는 재미 한인자들 중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류정치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재미 라틴계 이민자들에 대

한 연구에서 수버비-벨레즈(Subervi-Velez, 1984)는 교육수준과 함께 호스트사회 체류기간 변인이 이민자들의 주류사회에 대한 정치지식 수준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자들은 또한 이민자들의 교육수준과 체류기간은 그들의 증가된 영어실력으로 이어지며, 증가된 영어실력은 뉴스매체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뉴스매체이용은 그들의 정치사회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참고, Chaffee, Nass, Yang, 1990; Subervi-Velez, 1984).

이민자들의 주류 언어실력의 향상은 호스트사회에서의 주류 매체이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캐나다 이민자들에 대한 연구에서 리치몬드(Richmond, 1967)는 캐나다 신문과 잡지의 구독 정도는 이민자들의 영어나 불어 구사력과 매우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반면 이민자들의 향상된 주류 언어실력은 그들의 고유 언어 매체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버비-벨레즈(Subervi-Velez, 1984)는 재미 라틴계 이민자들의 향상된 영어실력은 히스패닉 매체이용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는 대중 매체는 수용자들의 다양한 정치 참여 혹은 정치사회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5) 연구가설

이상의 선행 연구 결과들은 이민자들의 교육수준, 호스트사회 체류기간, 영어실력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함께 대중매체 이용 역시 그들의 주류정치사회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가능케 했다. 본 연구는 대중매체는 일반 수용자들의 정치사회화(Chaffee, Jackson-Beeck, Durall, & Wilson, 1977)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소수계 구성원들의 정치사회화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Tan, 1983)이라는 측면에 주목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민자들의 교육수준, 체류기간, 영어실력등과 같은 선행 변인들은 그들의 뉴스매체(미국 매체, 한국어 매체, 웹사이트)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어 뉴스매체의 이용은 결국 그들의 주류 정치사회화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총 12가지의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H1> 한인 이민자들의 교육수준과 체류기간이 길수록, 그들의 영어실력이 높고, 이는 더 잦은 주류 매체 이용으로 이어지며, 결국 그들의 정치지식 증대로 이어진다.

<H2> 한인 이민자들의 교육수준과 체류기간이 길수록, 그들의 영어실력이 높고, 이는 더 잦은 주류 매체 이용으로 이어지며, 결국 그들의 정치관심 증대로 이어진다.

<H3> 한인 이민자들의 교육수준과 체류기간이 길수록, 그들의 영어실력이 높고, 이는 더 잦은 주류 매체 이용으로 이어지며, 결국 그들의 정치활동 참여 증대로 이어진다.

<H4> 한인 이민자들의 교육수준과 체류기간이 길수록, 그들의 영어실력이 높고, 이는 더 잦은 주류 뉴스 웹사이트 이용으로 이어지며, 결국 그들의 정치지식 증대로 이어진다.

<H5> 한인 이민자들의 교육수준과 체류기간이 길수록, 그들의 영어실력이 높고, 이는 더 잦은 주류 뉴스 웹사이트 이용으로 이어지며, 결국 그들의 정치관심 증대로 이어진다.

<H6> 한인 이민자들의 교육수준과 체류기간이 길수록, 그들의 영어실력이 높고, 이는 더 잦은 주류 뉴스 웹사이트 이용으로 이어지며, 결국 그들의 정치활동 참여 증대로 이어진다.

<H7> 한인 이민자들의 교육수준과 체류기간이 길수록, 그들의 영어실력이 높고, 이는 낮은 한국어 뉴스 웹사이트 이용으로 이어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뉴스 웹 이용은 결국 그들의 정치지식 증대로 이어진다.

<H8> 한인 이민자들의 교육수준과 체류기간이 길수록, 그들의 영어실력이 높고, 이는 낮은 한국어 뉴스 웹사이트 이용으로 이어지며, 그럼에도

- 불구, 한국어 뉴스 웹 이용은 결국 그들의 정치관심 증대로 이어진다.
- <H9> 한인 이민자들의 교육수준과 체류기간이 길수록, 그들의 영어실력이 높고, 이는 낮은 한국어 뉴스 웹사이트 이용으로 이어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뉴스 웹 이용은 결국 그들의 정치활동 참여 증대로 이어진다.
- <H10> 한인 이민자들의 교육수준과 체류기간이 길수록, 그들의 영어실력이 높고, 이는 낮은 한국어 뉴스 매체 이용으로 이어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뉴스 매체 이용은 결국 그들의 정치지식 증대로 이어진다.
- <H11> 한인 이민자들의 교육수준과 체류기간이 길수록, 그들의 영어실력이 높고, 이는 낮은 한국어 뉴스 매체 이용으로 이어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뉴스 매체 이용은 결국 그들의 정치관심 증대로 이어진다.
- <H12> 한인 이민자들의 교육수준과 체류기간이 길수록, 그들의 영어실력이 높고, 이는 낮은 한국어 뉴스 매체 이용으로 이어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뉴스 매체 이용은 결국 그들의 정치활동 참여 증대로 이어진다.

3. 연구방법

1) 전화설문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은 2001년 8월25일부터 9월15일 기간동안 18세 이상 재미 한국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 다른 유용한 설문조사 방법의 하나인 우편조사는 한국계 이민자 집단에서 응답률이 매우 낮게 나온다(참고, Chaffee, Nass, & Yang, 1990)는 점을 감안해 이 방법은 배제됐다. 서피와 동료들(1990)은 1988년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의 한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우편설문조사에서 매우 낮은 23.9%의 응답률을 얻었다.

2) 샘플링 프레임

일반적으로 소수민족이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설문조사의 샘플링 프레임으로 전화번호부가 주로 이용되지만(참고, Chaffee, Nass, & Yang, 1990; Kim, 1977; Lee, 1984) 본 연구에서는 'Switchboard.com'이라는 사람찾기 전문 사이트가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번호 명단을 이용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인터넷 전화번호 명단은 책자 형식의 기존 전화번호부보다 더 많은 수의 모집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시카고 지역의 기존의 책자형 인명편 전화번호부에서 한국인의 고유 성씨인 Choi(최)를 가진 사람의 전화번호는 160개 였으나 Switchboard.com은 190명에 달하는 Choi 성씨를 가진 사람들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었다.

3) 샘플링 설계

모집단은 전 미국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20개 도시¹⁾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한국계 이민자들로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 이었다. 즉,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들은 이민자로 간주되지 않았다. 재미 한인 이민자들은 1960년대 이후 이주한 이민 1세대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다른 아시아계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한인 이민자들은 주로 미국의 대도시에서 가장 많이 거주한다. 1990년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약 585,191명의 한인들이 주요 20개 도시와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거주 전체 한인인구 798,849명의 73%에

1) 1990년 미국 인구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전국 20개 도시는 다음과 같다. 로스앤젤레스(194,437), 뉴욕(118,096), 샌프란시스코(42,277), 워싱턴 DC(39,850), 시카고(36,952), 필라델피아(24,568), 시애틀(23,901), 볼티모어(12,967), 달라스(11,041), 애틀랜타(10,120), 보스턴(9,274), 디트로이트(9,193), 미네아폴리스(8,721), 휴스턴(7,423), 덴버(7,073), 포틀랜드(6,774), 샌디에고(6,772), 리버사이드(5,586), 새크라멘토(5,468), 오로라(4,698).

달하는 수치이다.

최초의 예비 응답자 550명은, 전체 한인인구에서 각 도시의 한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 도시에서 추출할 적절한 예비응답자수²⁾를 결정한 후, 각 도시에 할당된 예비 응답자수 중에서 한국인의 주요 성씨인 김(Kim), 이(Lee), 박(Park), 최(Choi)에 해당하는 응답자 수가 결정됐다.³⁾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는 총 183명의 예비 응답자수가 할당됐으며 이 중 김, 이, 박, 최 성씨 응답자가 차지하는 수는 각각, 79, 54, 32, 18명 이었다. Switchboard.com이 제공하는 각 도시의 각 성씨 명단을 이용해, 적절한 수의 예비응답자를 체계적인 표본추출 방법으로 작성했다.

표본추출의 무작위성을 실제 설문과정에서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조사자는 ‘가족 구성원 중에서 설문 시점을 기준으로 생일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탐색했다. 전화설문 과정에서 예비응답자가 이용가능하지 않거나(무응답 혹은 결번 등) 본 연구가 제시한 자격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미국 태생, 비한인, 미성년 등)는 바로 다음 응답자(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도했다. 전화 신호는 가지만 응답이 없거나 자격기준에 부합되는 응답자가 외출중인 경우는 다른 시간대를 이용해 추가로 세 번까지 전화걸기를 시도했다.

2) 20개 각 도시를 할당하여 표집된 응답자 수는 다음과 같다. 로스앤젤레스 183, 뉴욕 111, 샌프란시스코 40, 워싱턴 D.C. 37, 시카고 35, 필라델피아 23, 시애틀 22, 볼티모어 12, 달 라스 10, 애틀랜타 10, 보스턴 9, 디트로이트 9, 미네아폴리스 8, 휴스턴 7, 덴버 7, 포틀랜드 6, 샌디에고 6, 리버사이드 5, 새크라멘토 5, 오로라 5명 등이다.

3) 한국 전체 인구에서 김, 이, 박, 최 성씨는 각각 22%, 15%, 9%, 5%를 차지한다. 이 같은 성씨 구성은 미국에 있는 한인 인구에서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간주됐다. 미국의 주요 20개 도시와 메트로폴리탄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는 585,191명이며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 194,437명은 이의 33%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체 예비 응답자 수 550명의 33%에 해당하는 183명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추출하고 이 183명은 또 김, 이, 박, 최 성씨의 비율에 맞게 각각 79명, 54명, 32명, 18명씩 추출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19개 도시에서도 응답자 명단을 추출했다.

4) 응답률

2001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 기간동안 최종 371명의 응답자들로부터 전화설문조사를 완료해 응답률은 67.5%에 달했다. 무작위 추출 표본의 의미를 잃지 않기 위해 일반적으로 약 60% 정도의 응답률이 요구된다는 점 (Frey, Botan, Friedman, & Kreps, 1991)을 감안하면 본 연구에서 얻은 응답률은 적절한 수준으로 간주됐다.

5) 종속변인

<정치지식> 응답자들의 정치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주류사회의 정치지도자, 정치기구, 민주/공화당 구분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⁴⁾ 정치지식 측정을 위한 질문에 옮겨 답변한 항목의 수를 종합해 정치지식 척도가 만들어졌다.

<정치관심> 정치관심은 한인 이민자들이 주류사회의 연방정치와 지방자치정부의 정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의 정도를 말한다. 정치관심 질문은 “지방정치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⁵⁾와 “연방정부 정치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⁶⁾라는 질문에 ‘전혀관심이 없다(0)’에서 ‘매우

4) 참고, Lee, D. S.(1984). Mass media and political socialization of immigrants. 박사 학위논문, The university of Iowa. Althaus, S. L., & Tewksbury, D. (2000). *Patterns of internet and traditional news media use in a networked community. Political Communication*, 17, 21-45. Chaffee, S. H., Nass, C. I., & Yang, S. M.(1990). The bridging role of television in immigrant political socializ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7, 266- 288. 본 연구에서 도입된 정치지식 측정을 위한 질문들은 위에 제시된 선행연구들로부터 그대로 인용되거나 약간 변형돼 인용됐음을 밝힌다.

5) 참고, McLeod, J. M., Scheufele, D. A., & Moy, P.(1999). Community,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The role of mass media and interpersonal discussion in local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16, 315-336. 지방정부 정치에 대한 관심 질문은 위 연구에서 그대로 인용돼왔다.

6) 참고, Lee, D. S.(1984). Mass media and political socialization of immigrants. 박사

관심이 높다(10)까지의 스케일에 답변하도록 했다. 두 항목간의 단순상관 관계 계수값(r)은 0.89였다.

<정치활동 참여> 정치활동 참여란 응답자들이 대통령 선거 투표, 캠페인 참여, 정부관리 접촉, 지역위원회나 단체 봉사, 정치시위 참여 여부 등 다양한 정치적 활동에의 참여 여부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지난 2000년 대선에서 유권자 등록을 했습니까?”와 “지난 5년간 정치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등의 질문(가)을 던져 긍정적인 답변 항목의 총합으로 응답자의 정치활동 참여 지수를 만들었다.

6) 독립변인

미국뉴스매체 이용: 미국 뉴스 매체는 주로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의 텔레비전뉴스, 신문, 라디오뉴스, 시사잡지의 이용정도를 일컫는다. 미국뉴스매체 이용 측정은 예를 들어 “미국 텔레비전 뉴스를 얼마나 자주 시청하십니까?”라는 질문에 0-6 스케일상 전혀 시청하지 않음은 0, 거의 항상 시청함은 6)에 답하도록 해 이루어졌다.⁸⁾ 각 매체이용 점수를 합산해 전반적인 미국뉴스매체 이용정도의 척도로 사용됐다.

<미국 뉴스웹 이용> 영어로 이루어져있는 미국의 뉴스 웹사이트 이용정도를 일컫는다. 이용도 측정을 위해 “CNN, MSNBC, 뉴욕타임즈, LA타임즈와 같은 미국뉴스 웹사이트를 하루에 몇 분 정도 이용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한국어 뉴스웹 이용> 한국어로 이루어져있는 뉴스 웹사이트 이용정도

학위논문, The university of Iowa. 연방정부 정치 관심에 대한 질문은 이 연구에서 그대로 인용되어왔다.

- 7) 참고, Junn, J.(1999). Participation in liberal democracy: The political assimilation of immigrants and ethnic minoritie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2, 1417-1438. 참여 질문은 이 연구에서 직접 인용하였다.
- 8) 참고, 앞의 Chaffee, Nass, & Yang(1990)의 연구. 질문과 스케일 모두 Chaffee와 동료들의 연구에서 인용했다.

를 일컫는다. 이용도 측정을 위해 “한국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KBS뉴스, MBC뉴스와 같은 한국어 뉴스웹사이트를 하루에 몇 분 정도 이용하십니까?”라는 질문이 주어졌다.⁹⁾

<한국어 뉴스매체 이용> 한국어 뉴스 매체 이용은 텔레비전뉴스, 신문, 라디오뉴스, 시사잡지 등의 이용정도를 일컫는다. 텔레비전 뉴스 이용도 측정을 위해 “한국어 텔레비전 뉴스를 얼마나 자주 시청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나머지 매체 이용도 측정도 같은 방식의 질문을 해 주어졌다. 각 질문에 대한 답은 0(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부터 5(거의 항상 이용한다)까지의 스케일에 답하도록 했다.¹⁰⁾ 각 매체의 이용도 점수를 합산해 한국어뉴스 매체의 이용정도를 가늠했다.

<교육수준> 측정을 위해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라는 질문에 따른 ‘초등학교졸’ ‘중졸’ ‘고졸’ ‘대학 중퇴’ ‘대졸’ ‘대학원재 혹은 중퇴’ ‘대학원졸’ 등이 항목에 답하도록 했다.

<체류기간> 체류기간은 이민이래 미국에서 거주한 햇수를 일컫는다. 이의 측정을 위해 “미국에서 사신 지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영어실력> 측정을 위해 자신의 영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능력에 대한 질문을 했다. 예를 들어, “영어 말하기 실력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전혀 좋지 않다(0)에서 매우 좋다(5)까지의 스케일에 답변하도록 했다. 네 항목간의 α (reliability coefficient) 값은 0.96 이었다.

9) 참고, Ferguson, D. A., & Perse, E. M.(2000). The World Wide Web as a functional alternative to televisio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44, 155-174. 미국 뉴스웹과 한국어 뉴스웹 이용도 측정을 위한 질문 모두 이 연구에서 차용했다.

10) 참고, 앞의 Chaffee와 동료들(1990)의 연구. 질문과 스케일 모두 이 연구에서 차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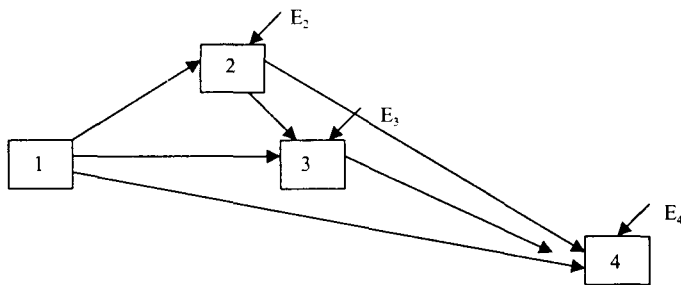
4. 통계방법

본 연구는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인들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경로분석(path analysis)방법을 채택했다. 주요 독립변인들 간의 유의미한 경로가 결국 종속변인들에게 까지 이어지는 지를 분석했다.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 패턴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경로분석 방법(Pedhazur, 1982)은 정치사회화 과정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분석 도구 역할을 해왔다(참고, Chaffee, Nass, Yang, 1990; Conway, Wyckoff, Feldbaum, & Ahern, 1981; Kim, 1977; Lee, 1984; Subervi-Velez; 1984).

경로분석은 기본적으로 회귀분석방법과 유사하다. 하지만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회귀분석에서는 하나의 종속변인은 주어진 모든 독립변인에 대해 단 한번의 분석으로 회귀유무를 판단하는 반면, 경로분석에서는 최소 두번 이상의 회귀분석이 이루어진다(Pedhazur, 1982). 일단의 독립변인으로부터 하나의 종속변인으로 이르는 경로의 비중인 경로 계수는 β (calculated beta)로 표시한다.

<그림 1>에 나타난 변인 1에서 변인 2로의 경로(P21)는 2를 1에 회귀시킴으로써 계산된다. P31과 P32는 변인 3을 변인 1과2에 한꺼번에 회귀시킴으로써 얻어진다. 마찬가지로, P41, P42, P43은 변인 4를 변인 1, 2, 3에

<그림 1> 기본 경로분석 모델



한꺼번에 회귀시킴으로써 얻어진다. 모델에 포함되지 않은 변인들(unmeasured variables)로부터 종속변인(endogenous variable)으로의 경로계수는 $\sqrt{1-R}$ 제곱.12...i 이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모델에 포함되지않은 변인들로부터 변인 2로의 경로계수는 $\sqrt{1-R}$ 제곱2.1(E2)이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분포를 나타냈다. 단, 18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한 본 연구의 특성상 나이 변인(Mean =41.7, SD=14.37)과 기혼자율(79.7%)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남녀 비율은 각각 50.7%(N=188)와 49.3%(N=183)였다. 응답자중 시민권자의 비율은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47.8%(N=177)였다. 응답자 가정의 연평균 소득수준은 3천-5천 달러였다. 응답자의 약 41%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평균 체류기간은 13.2년이었다. 응답자의 약 21%가 자신들의 영어실력이 '좋다' 혹은 '매우 좋다'고 응답했다.

2)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

<표 1>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응답자들의 영어구사능력은 교육수준($r=.41, p<.01$), 체류기간($r=.31, p<.01$)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미국사회에서의 이민 기간이 길수록 영어실력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응답자들의 교육, 체류기간, 영

<표 1> 영어와 교육, 체류기간과의 상관관계

	교육	체류기간
영어	.41**	.31**

**p<.01

어실력 등과 같은 특성은 미국 미디어, 미국 웹사이트 이용과는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한국어 미디어와 한국어 웹사이트 이용과는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통적인 미국 미디어 이용은 교육($r=.36, p<.01$), 재미체류기간($r=.37, p<.01$), 영어실력($r=.58, p<.01$) 등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교육수준과 영어실력이 좋고 체류기간이 길수록 한인 이민자들은 미국 대중매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겠다. 미국 웹사이트 이용은 응답자들의 교육정도, 체류기간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으며, 영어구사력과 유의미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8, p<.01$). 한국어 미디어 이용은 교육($r=-.24, p<.01$), 영어실력($r=-.27, p<.01$)과 유의미한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 웹 이용은 체류기간($r=-.36, p<.01$), 영어실력($r=-.22, p<.01$)과 유의미한 부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교육, 체류기간, 영어와 미디어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교육	체류기간	영어
미국 미디어	.36**	.37**	.58**
미국 웹			.28**
한국어 미디어	-.24**		-.27**
한국어 웹		-.36**	-.22**

** $p<.01$

3) 미디어 변인과 종속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매체는 대체적으로 정치사회화 변인들과 유의미한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한국어 매체는 전반적으로 미미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좀더 자세히 기술하면, 한인 이민자들의 전통 미국 미디어 이용은 정치지식($r=.29, p<.01$), 정치관심($r=.46, p<.01$), 정치활동참여($r=.31, p<.01$)와 유의미한 긍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인 미국 대중매체(신문, 텔레비전 뉴스, 라디오뉴스, 시사잡지) 이용은

한인 응답자들의 정치지식, 정치관심, 정치활동참여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웹 사이트는 미국 전통매체만큼은 아니었지만 정치관심 ($r=.11, p<.05$), 정치활동참여($r=.18, p<.05$)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어 미디어가 정치적 관심($r=.11, p<.05$)과 미약하지만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을 뿐 정치지식, 정치활동참여와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못했다. 한국 웹 사이트 이용은 정치활동 참여($r=-.15, p<.05$)와 미약하지만 유의미한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정치지식, 정치관심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표 3> 미디어와 정치사회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정치지식	정치관심	정치활동참여
미국 미디어	.29**	.46**	.31**
미국 웹		.27**	.18**
한국어 미디어		.11*	
한국어 웹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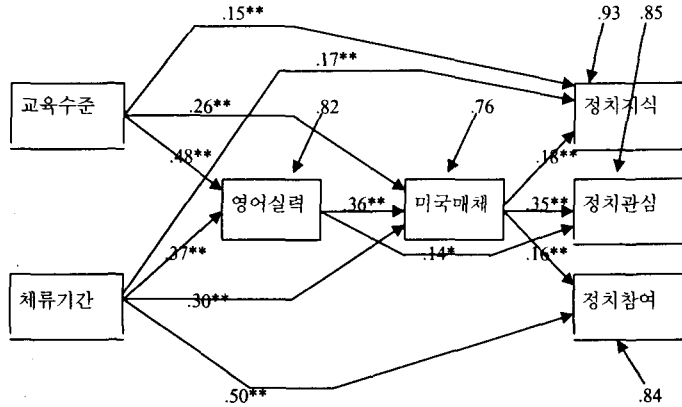
* $p<.05$; ** $p<.01$

4) 미국매체이용과 정치사회화 경로분석

<그림2>가 나타내듯이 교육수준($\beta=.48, p<.01$)과 체류기간($\beta=.37, p<.01$)으로부터 영어실력으로 유의미한 경로가 있었으며, 영어실력($\beta=.36, p<.01$)으로부터 미국매체이용으로도 유의미한 경로가 발견됐다.¹¹⁾ 마

11) 교육과 체류기간으로부터 영어실력으로의 경로분석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으며 경로계수와 유의미도 등은 앞으로 제시될 미디어 변인에 따른 네가지의 정치사회화 경로분석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교육에서 영어로의 경로계수인 β 값은 .48($p<.01$), 체류기간으로부터 영어로의 β 값은 .37($p<.01$)이며 이는 네가지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어 교육, 체류기간, 영어실력 변인들로부터 각 미디어 변인으로의 경로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여기에서 얻은 경로계수와 유의미도 등은 앞으로 제시될 미디어 변인에 따른 네가지 경로분석 모델에서 각각 제시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미디어가 종속변인으로 포함된 경로분석

<그림 2> 미국매체 이용과 정치사회화 경로분석 모델



* p<.05; **p<.01

지막으로 미국매체 이용에서 정치지식(beta=.18, p<.01), 정치관심(beta=.35, p<.01), 정치활동참여(beta=.16, p<.01) 등 세가지의 정치사회화 변인으로 유의미한 경로가 있었다. 한인 이민자들의 교육수준과 체류기간이 길수록, 그들의 영어실력이 높고, 이는 더 잦은 주류 뉴스매체 이용으로 이어지며, 결국 그들의 정치지식, 정치관심, 정치활동참여 증대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육, 체류기간, 영어실력 변인들은 미국 주류사회의 전통 뉴스매체의 매개적 역할을 거쳐 한인 이민자들의 정치사회화에 영향을 미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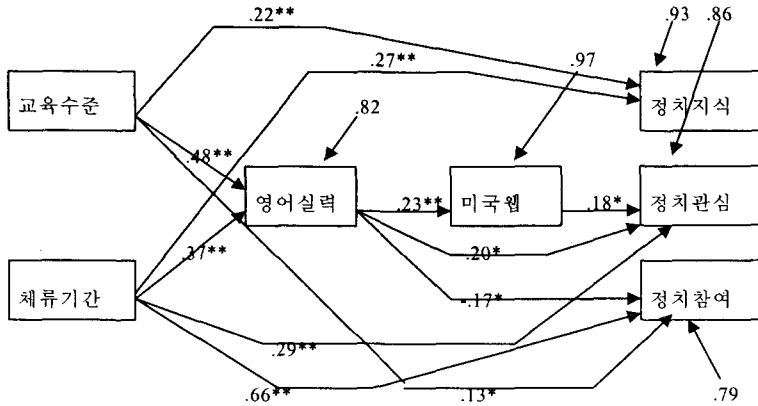
모델에서, 교육에서 미국미디어로의 경로분석 계수는 .26(p<.01), 체류기간으로부터 미국미디어로의 계수는 .30(p<.01), 영어에서 미국미디어로의 경로분석계수는 .36(p<.01)이었다. 미국 웹이 종속변인인 모델에서는, 영어에서 미국 웹으로의 경로계수가 .23(p<.01)이었으며 교육과 체류기간으로 부터의 경로는 유의미하지 못했다. 한국어 웹이 종속변인인 모델에서는 체류기간에서 한국어 웹 사이에 유의미한 경로(beta=-.32, p<.01)가 나타났으며, 한국어 미디어가 종속변인인 모델에서는 체류기간(beta=.15, p<.05)과 영어(beta=-.32, p<.01)에서 한국어 미디어로 유의미한 경로가 나타났다.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연구가설은 채택되었다.

5) 미국 뉴스 웹 이용과 정치사회화 경로분석

<그림3>이 나타내듯이 교육수준(beta=.48, p<.01)과 체류기간(beta=.37, p<.01)으로부터 영어실력으로 유의미한 경로가 있었으며, 영어실력(beta=.23, p<.01)으로부터 미국 웹사이트 이용으로도 유의미한 경로가 발견됐다. 미국 뉴스웹 이용에서 정치관심(beta=.18, p<.05) 변인으로 유의미한 경로가 있었다. 한인 이민자들의 교육수준과 체류기간이 길수록, 그들의 영어구사실력이 높아지고, 이는 더 잦은 미국 뉴스 웹사이트 이용으로 이어지며, 결국 그들의 정치관심 증대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한인 이민자들에 의한 미국 뉴스 웹사이트 이용은 그들의 주류정치에 대한 관심을 증진 시킴으로서 부분적이거나 정치사회화에 긍정적인 매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다섯 번째 연구가설은 채택되었다. 하지만 네 번째와 여섯 번째 연구가설과 관련해서는 일부 구간에서만 유의미한 경로가 나타나

<그림 3> 미국웹 이용과 정치사회화 경로분석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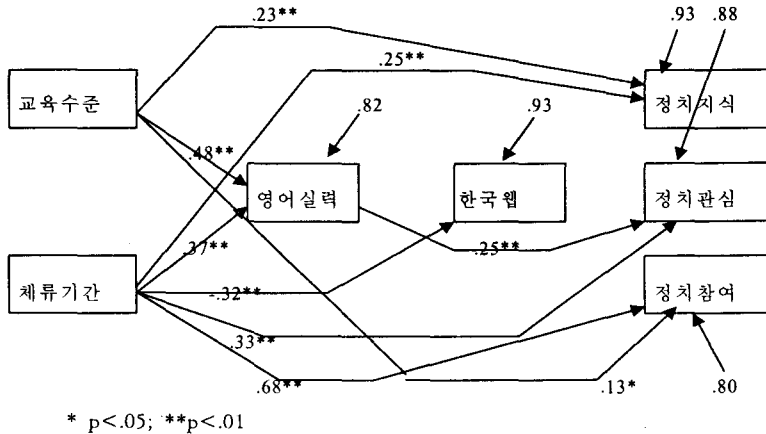
* p<.05; **p<.01

는 데 그쳤다.

6) 한국어 뉴스 웹 이용과 정치사회화 경로분석

<그림 4>가 나타내듯이 교육수준(beta=.48, p<.01)과 체류기간(beta=.37, p<.01)으로부터 영어실력으로 유의미한 경로가 있었다. 하지만 영어실력으로부터 한국어 뉴스 웹사이트 이용으로는 유의미한 경로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어 뉴스웹 이용에서 정치지식, 정치관심, 정치활동참여 변인들로도 유의미한 경로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인 이민자들의 교육수준과 체류기간이 길수록, 그들의 영어실력이 높아지지만, 이는 한국어 뉴스 웹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한국어 뉴스 웹 이용은 한인 이민자들의 정치지식, 정치관심, 정치적 활동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인 이민자들의 정치사회화과정에서 한국어 뉴스 웹사이트가 하는 매개적 역할은 유의미하지 못하며, 교육, 체류기간, 영어실력 등이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림 4> 한국어 웹 이용과 정치사회화 경로분석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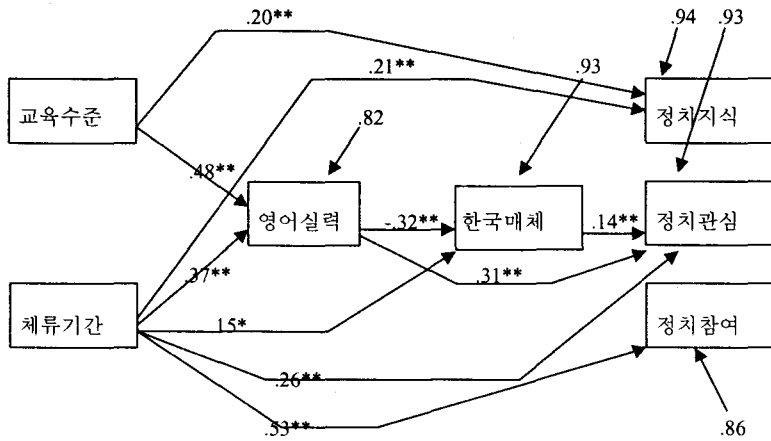


아홉번째 연구가설은 일부 독립변인들 간의 관계에서만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

7) 한국어 매체 이용과 정치사회화 경로분석

<그림 5>가 나타내듯이 교육수준(beta=.48, p<.01)과 체류기간(beta=.37, p<.01)으로부터 영어실력으로 유의미한 경로가 있었으며, 영어실력(beta=-.32, p<.01)으로부터 한국어 매체 이용으로는 부정적인 경로가 발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매체 이용은 정치관심 증대로 이어졌다(beta=.14, p<.01). 즉, 한인 이민자들의 교육수준과 체류기간이 길수록, 그들의 영어실력이 높고, 이는 낮은 한국어 뉴스 매체 이용으로 이어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뉴스 매체 이용은 결국 그들의 주류정치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한국어 전통매체 이용은 한인 이민자들의 정치적 관심을 증진시킴으로서 부분적으로나마 정치사회화과정에서

<그림 5> 한국어매체 이용과 정치사회화 경로분석 모델



* p<.05; **p<.01

유의미한 매개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열한 번째 가설은 채택되었다. 하지만 한국어 매체 이용에서 정치지식과 정치활동참여 변인으로는 유의미한 경로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열 번째와 열두 번째 연구가설은 독립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부분에서만 제한적으로 채택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재미 한인 이민자들의 정치사회화 과정에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교육수준, 체류기간, 영어실력)의 직접적인 영향(혹은 기여)도 중요하지만, 이들 변인들이 뉴스매체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어 뉴스매체는 수용자들의 주류정치사회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매개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중에서 미국 체류기간은 응답자들의 주류정치에 대한 지식, 관심, 활동참여를 직접적으로 증진시킴으로서 그들의 정치사회화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기여를 하는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교육수준과 영어실력은 각각 응답자들의 정치지식과 관심을 특히 증진시킴으로서 그들의 주류 정치 사회화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은 뉴스매체(특히 미국 주류매체)이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어 뉴스매체는 응답자들의 정치사회화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국 주류사회의 전통 뉴스매체(신문, 텔레비전뉴스, 라디오뉴스, 시사잡지)는 한인 이민자들의 정치지식, 정치관심, 정치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데 있어 매개적 역할을 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사회화에 유의미한(혹은 유익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한국어 뉴스매체(한국어 신문, 텔레비전뉴스, 라디오뉴스, 시사잡지)는 한인 이민자들의 정치관심을 증진시킴으로써 그들의 정치사회화에 부분적으로나마 유의미한 매개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뉴스 웹사이트는 한인이민자들의 주류 정치사회화에 상대적으로 적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이민자들의 미국 뉴스 웹사이트 이용이 주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정치사회화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어 뉴스 웹사이트 이용은 그들의 정치사회화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이 일반인들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유의미한 긍정적 연구결과와 주장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주류 정치사회화에 인터넷이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하거나,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단, 주류사회의 인터넷 이용이 정치관심을 촉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이 이민자들의 주류정치사회화에 미칠 가능성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하겠다.

세계화추세와 함께 한 사회 혹은 한 국가의 민족적·인종적 구성원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사회나 국가의 정치체제는 그들의 원만한 정치사회화 과정을 통해 유지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재미 한인 이민자들은 물론 한 사회나 국가에 새로 이주한 소수계층이 자신들만의 ‘문화적 섬’에 외떨어져 거주함으로써 주류사회에의 적응과 진출에 실패한다면 이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못된다. 원활한 정치사회화를 통한 이민자들의 적극적인 주류 정치참여가 바람직하며 이 같은 과정에서 대중 뉴스매체의 진지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변인측정과 관련, 심도있고 다양한 질문항목을 갖추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화 설문조사의 한계점이었다. 향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전화설문조사 외에도 방문이나 우편 설문조사등을 함께 아우르는 복합 설문조사 방식을 고려해볼만 하겠다. 한인 이민자라는 한 민족그룹보다는 둘 이상의 민족 그룹을 조사대상으로 해 비교연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응답자인 재미 한인이민자들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다른 문화권의 다른 이민자들의 정치사회화에 일반화 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Althaus, S. L., & Tewksbury, D. (2000). Patterns of Internet and traditional news media use in a networked community. *Political Communication*, 17, 21-45.
- Andersen, P.(1997). Cues of culture: The basis of intercultural differences in nonverbal communication. In L. A. Samovar, & R. E. Porter(Ed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pp. 244-256).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Anderson, R., Dardenne, R., & Killenberg, G. (1994). *The conversation of journalism: Communication, community, and news*. Westport, CT: Praeger.
- Atkin, C. K, & Gantz, W. (1978a). Television news and child audience. *Public Opinion Quarterly*, 42, 183-198.
- Atkin, C. K, & Gantz, W. (1978b). Communication and political socialization. In D. Nimmo & K. Sanders (Eds.), *Handbook of Political Communication* (pp. 507-524).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 Atkin, C., & Greenberg, B.(1974). *Public television and political socialization. Congress and mass communication*.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Austin, E. W., & Pinkleton, B. E.(1997). The roles of media use and media content evaluations in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disaffec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Chicago, IL.
- Beck, P. A.(1977). The role of agents in political socialization. In S. A. Renshon (Ed.). *Handbook of political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pp. 115-141). New York: The Free Press.
- Becker, T. (1993). Teledemocracy: Gathering momentum in state and local governance. *Spectrum: The Journal of State Government*, 66, 14-19.
- Becker, J. D., & Preston, I. L. (1970). Media usage and political activity.

- Journalism Quarterly*, 57, 122-129.
- Berman, J., & Weitzner, D. J. (1997). Technology and democracy. *Social Research*, 64, 1313-1319.
- Bimber, B. (1998). *The Internet and political transformation: Populism, community, and accelerated pluralism*. Polity, 31, 133-160.
- Bonchek, M. S. (1997). From broadcast to Netcast: The Internet and the flow of political information.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Bonchek, M. S., Hurwitz, R., & Mallery, J. (1996). Will the Web democratize or polarize the political process? *WWW Journal*, 3. <http://www.w3j.com/3/s3.bonchek.html>
- Brim, O. (1968). *Socialization and society*. Boston: Little, Brown.
- Browning, G. (1996). *Electronic democracy: Using the Internet to influence American politics*. Wilton, CT: Pemberton Press.
- Bryne, G. (1969). Mass media and political socialization of children and preadults. *Journalism Quarterly*, 46, 40-46.
- Bucy, E. P., D'Angelo, P., & Newhagen, J. E. (1997). New media us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Conference*, Chicago.
- Buehler, M. H. (1976).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discontent, and voting turnout among Mexican-Americans in Michiga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tre Dame.
- Chaffee, S. H., Nass, C. I., & Yang, S. M. (1990). The bridging role of television in immigrant political socializ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7, 266-288.
- Chaffee, S. H., Ward, L. S., & Tipton, L. P. (1970). Mass communication and political socialization. *Journalism Quarterly*, 47, 647-659, 666.
- Chaffee, S. H., & Yang, S. M. (1990). Communication and political socialization. In O. Ichilov (Ed.), *Political Socialization, Citizenship Education, and Democracy* (pp.137-157).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Press.

- Cho, W. T. (1999). Naturalization, socialization, participation: Immigrants and (Non-) voting. *The Journal of Politics*, 61, 1140-1150.
- Chubb, J. E., & Moe, T. M. (1988). Politics, markets, and the organization of school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2, 1065-1088.
- Conway, M. M., Wyckoff, M. L., Feldbaum, D. A., & Ahern, D. (1981). The mass media in childrens political socializ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45, 164-178.
- Corrado, A. (1996). *Cyberspace: Toward a New Era in American Politics*. Washington D.C.: The Aspen Institute.
- Davis, R. (1999). *The Web of politics: The Internets impact on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avis, R. & Owen, D. (1998). *New media and American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awson, R. E., & Prewitt, K. (1969). *Political socialization*. Boston: Little, Brown.
- DeFleur, M. L., & Cho, C. S. (1957). Assimilation of Japanese-born woman in an American city. *Social Problems*, 4, 244-257.
- Dion, K. (1985).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Random House.
- Dominick, J. (1972). Television and political socialization. *Educational Broadcasting Review*, 6, 48-55.
- Drew, D., & Reeves, B. (1980a). Children and television news. *Journalism Quarterly*, 57, 45-54.
- Easton, D., & Dennis, J. (1969). *Children in the political system: Origins of political legitimacy*. New York: McGraw-Hill.
- Eulau, H., & Schneider, P. (1956). Dimensions of political involvement. *Public Opinion Quarterly*, 20, 128-142.
- Frey, L. R., Botan, C. H., Friedman, P. G., & Kreps, G. L. (1991). *Investigating communication: An introduction to research method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Garramone, G. M. & Atkin, C. K. (1986). Mass communication and political socialization: Specifying the effects. *Public Opinion Quarterly*, 50, 76-86.

- Gerbner, G., Gross, L., Morgan, M., & Signorielli, N. (1984). Political correlates of television viewing. *Public Opinion Quarterly*, 48, 283-300.
- Gerbner, G., Gross, L., Morgan, M., & Signorielli, N. (1982). Charting the mainstream: Televisions contributions to political orient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32, 100-127.
- Gerbner, G., Morgan, M., & Signorielli, N. (1986). Living with television: The dynamics of the cultivation process. In J. Bryant & D. Zillman (Eds.). *Perspectives on Media Effects* (pp.17-40). Hillsdale, NJ: Erlbaum.
- Graber, D. A. (1997). *Mass media and American politics* (5th Ed.). Washington, DC: A Division of Congressional Quarterly Inc.
- Graber, D. A. (1984). *Process the News: How people tame the information tide*. New York: Longman.
- Graves, T. D. (1967). Acculturation, access, alcohol in a tri-ethnic community. *American Anthropologist*, 69, 306-321.
- Greenstein, F. I. (1965). *Children and politic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GVU (GVU, 1997). GVUs 7th WWW User Survey.
[http://www.gvu.gatech.edu/user_surveys/survey_199704#exec]
- Hawkins, R. P., Pingree, S., & Roberts, D. F. (1975). Watergate and political socialization. *American Politics Quarterly*, 3, 406-422.
- Hess, R. D., & Torney, J. V. (1967).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attitudes in children*. Chicago: Adline.
- Hirsch, H. (1971). *Poverty and politicization*. New York: Free Press.
- Hyman, H. (1959). *Political socialization*. New York: Free Press.
- Jackson-Beeck, M. (1979). Interpersonal and mass communication in childrens political socialization. *Journalism Quarterly*, 56, 48-53.
- Jaw, J. J. (1991). *The impact of television on Chinese students values*. Doctoral dissertation.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 Jennings, M. K., & Niemi, R. G. (1968b). The transmission of political values from parent to chil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

169-184.

- Johnson, N. (1973). Television and politization: A test of competing models. *Journalism Quarterly*, 50, 447-455.
- Johnson, T. J., Braima, M. A., & Sothirajah, J. (1999). Doing the traditional media sidestep: Comparing the effects of the Internet and other nontraditional media with traditional media in the 1996 presidential campaig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6, 99-123.
- Johnson, T. J., & Kaye, B. K. (2000). Democracys rebirth or demise? The influence of the Internet on political attitudes. In D. A. Schultz (Ed.). *Its show time! Media, politics, and popular culture* (pp. 209-228). New York: Peter Lang.
- Johnson, T. J., & Kaye, B. K. (1998). Cruising is believing? Comparing Internet and traditional sources on media credibility measure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5, 325-340.
- Junn, J. (1999). Participation in liberal democracy: The political assimilation of immigrants and ethnic minoritie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2, 1417-1438.
- Katz, J. (1997, December). The digital citizen. *Wired*, p.72.
- Katz, E., Gurevitch, M., & Hass, H. (1973). On the use of the mass media for important thing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 164-181.
- Kurtz, H. (1995, November 13). Webs of political intrigue: Candidates, media looking for Internet constituents. *Washington Post*.
- Lai, J. S. (Ed.) (1999). 2000 *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political almanac* (9th Ed.). Los Angeles: UCLA Asian American Studies Center.
- Langton, K. P. (1969). *Political soc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e, D. S. (1984). Mass media and political socialization of immigrants.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Iowa.
- Leshner, G., & McKean, M. L. (1997). Using TV news for political information during an off-year election: Effects on political

- knowledge and cynicism.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5, 69-83.
- Lewellen, J. (1976). Mass media and political participation. *Social Education*, 40, 457-461.
- McLeod, J. M., Bybee, C. R., & Durall, J. A. (1979). The 1976 presidential debates and the equivalence of informed political participation. *Communication Research*, 6, 463-487.
- McLeod, J. M., Kosicki, G. M., & McLeod, D. M. (1994). The expanding boundaries of political communication effects. In J. Bryant & D. Zillmann,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pp.123-16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cLeod, J. M., Zhongshi, G., Daily, K., Steele, C. A., Huang, H., Horowitz, E., & Chen, H. (1996).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3, 401-416.
- Miller, M. M., & Reese, S. D. (1982). Media dependency as interaction: Effects of exposure and reliance on political activity and efficacy. *Communication Research*, 9, 227-248.
- Mortimer, J., & Simmons, R. (1978). *Annual review of sociology*. Palo Alto, CA: Annual Reviews.
- Norris, P. (1996). Does television erode social capital? A reply to Putnam.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29, 474-480.
- Page, B. (1996). *Who deliberates? Mass media in modern democra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vlik, J. V. (1996). *New media technology: Cultural and commercial perspectives*. Boston: Allyn & Bacon.
- Pew Internet & American Life (2001). The changing online population: Its more and more like the general population. [<http://www.pewinternet.org>]
- Pew Research Center for the People and the Press (1996). *One in ten voters online for campaign 96*. Washington, DC: Author.
- Pinkleton, B. E., & Austin, E. W. (1998). Media and participation: Breaking the spiral of disaffection. In T. J. Johnson, C. E. Hays, &

- S. P. Hays (Eds.), *Engaging the Public: How Government and the Media Can Reinitalize American Democracy* (pp.75-86).
- Prosser, M. H. (1978). *The cultural dialogue: An introduction to intercultural communic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 Renshon, S. A. (1977). *Handbook of political socializ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 Rheingold, H. (1993). A slice of life in my virtual community. In L. M. Harisim (Ed.). *Glogal networks* (pp.57-80). Cambridge, MA: MIT Press.
- Richmond, A. H. (1967). *Post-war immigrants in Canada*.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Riley, M., Foner, A., Hess, B., & Toby, M. (1969).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Rand McNally.
- Shaffer, S. D. (1981). A multiple explanation of decreasing turnout in presidential elections, 1960-76.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5, 68-95.
- Sheinkopf, K. (1973).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anticipatory socialization. *Journalism Quarterly*, 50, 24-30.
- Sigel, R. S. (1989). Introduction: Persistence and change. In R. S. Sigel (Ed.). *Political learning in adulthood: A sourcebook of theory and research* (pp.vii-xvi).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imon, J. (1996). Media use and voter turnout in a presidential election. *Newspaper Research Journal*, 17, 25-34.
- Stephens, R. (1967). Schools and war. *Teachers College Journal*, 256-274.
- Subervi-Velez, F. A. (1984). Hispanics, the mass media, and politics: Assimilation vs. pluralism.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 Swope, C. (1997, November, 29). Mr. Smith e-mails Washington: Constituents on line. *Congressional Quarterly Weekly Report*, 55, 2940-2941.
- Teixeira, R. A. (1992). *The disappearing American voter*.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 Toffler, A., & Toffler, H. (1995). *Creating a new civilization: The politics of the third wave*. Atlanta: Turner Publishing.
- Waluszko, L. (1995). Radio and television call-in shows and their impact on the public in the 1992 presidential campaig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Washington, DC.
- Weaver, D. H. (1996). What voters learn from media.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46, 34-47.
- Weaver, D. H., & Drew, D. (1995). Voter learning in the 1992 presidential election: Did the nontraditional media and debates matter? *Journalism Quarterly*, 72, 7-17.

(최초 투고 2003. 5. 14, 최종원고 제출 2003. 7. 14)

The Mediating Role of Traditional News Media and the News Web in the Political Socialization of Korean Immigrants to the Host Society

Predicting Political Knowledge, Interest, and Participation

Hyo-Seong Lee

Lecturer

School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s, Kyunghee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how Korean immigrants education, length of stay and English fluency affect their political socialization, mediated through traditional news media and the news Web use. Political socialization included political knowledge, interest, and participation. The media usage patterns included U.S. news media, U.S. news Web, Korean news Web, and Korean news Media use by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 This study found as follows. First, education, length of stay, and English fluency indirectly increased political socialization(political knowledge, interest, and participation) through their relationship with U.S. news media use. Second, U.S. news Web played a potentially important role in Korean immigrants' political socialization by increasing their political interest. Third, Korean news media partly contributed to Korean immigrants' political socialization by increasing their political interest. Fourth, Korean news Web use did not contribute to Korean immigrants' political socialization in terms of political knowledge, interest, and participation at all. In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at traditional news media's role was more important than news Web's one in the process of immigrants' political socialization to the host society.

Keywords: traditional news media, news Web, political socialization, immigrants